

한국건축에서 장소성 개념의 변천과 의미구조에 대한 연구*

- 1990년대 전후의 한국건축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achronic and Synchronic Structure of the Concept of Place in Korean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Korean Architectural Discourse during Around 1990s -

Author 김인성 Kim, In-sung / 정희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mplex meanings of the concept of place and their periodical changes in the Korean architectural discourse. For that, the study surveyed almost every articles in major 3 Korean architectural magazines during around 1990s, when the Korean architects and theorists concerned the 'place' as an alternative of the modernists' 'space'. 60 selected articles were organized in a table in a chronological order together with their keywords and category codes. The 8 categories reflecting 8 issues of 'place' were suggested in the study after the analysis of selected articles' contents. The categories were structured by two axes which were 4-grade scale axis influences by C. Norberg-Schultz' approach, and 'architecture-human' axis following the 'structure-action' division by A. Giddens. After the analysis of the diachronic and synchronic tables, the study tried to establish a structure model of the concept of place in Korean architectural context, which consisted of architectural terms such as environment, social system, context, identity, landscape, community, Materiality, and residence. This final result could be useful for both architects and theorists who might try to apply the idea of 'place' without erstwhile confusion on their design or research by examining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concept.

Keywords 장소성, 건축잡지, 맥락, 정체성, 경관, 공동체
Place, Architectural Magazine, Context, Identity, Landscape, Commun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건축담론에서 '장소'의 용어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난해한 용어 중의 하나이다. 근대건축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추상적 '공간' 개념의 보완이자 대안으로 각광받은 장소 개념은, 그러나 그 개념 자체의 방대한 폭과 깊이에서 비롯된 오남용과 물이해의 양극단에서 배회해 왔다. 일상 언어로도 자주 쓰이는 장소의 용어는 우선적으로 현실의 상황과 사건들을 손쉽게 담론으로 끌고 들어오는 방편으로 쓰이면서 그 본 뜻이 '세속화'되며 왜곡될 위험성을 갖는다. 반대로 수사학과 관련된 장소 개념¹⁾은 '모든 인식의 토대로서의 장소'를 이야기하며 지나치게 확장된 추상적 수사로 또다시 진락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실존주의에 기댄 장소 개념은 개인 내면적 깊이로

의 침잠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 대안 없는 낭만주의로 치부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소 개념의 가장 정확한 의미와 범위, 그 결정적 특성과 용례를 찾으려는 시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이 장소 개념 또한 그 의미의 역사적 변천을 겪어왔고, 단일한 내용으로 수렴되지 않는 '가족유사'적 특성들을 유동적으로 보유하며 그 모호한 의미영역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그러한 시도를 보인 연구로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²⁾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장소(場所, place)라는 단어의 다양

1) "고전적 의미에서 장소(topos)는 수사학과 관련을 가졌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장소는 어떤 주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배경과 관련을 가진다. ... 어떤 것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장소를 가져야만 한다. 즉 알 수 있는 것 따라서 의미 있는 것은 그것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는 사물의 장소를 잃'이라는 점에서 이해된다."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통권 제8호, 2002.12, pp.253-278

2)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2권 제5호, 1997.10, pp.169-184

* 이 연구는 2013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한 어원과 장소를 다루었던 이론가들의 주장들이 폭넓게 개진되며 장소와 장소성의 의미 및 형성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시는 특정 시공간적 배경을 초월한 일반론의 이론적 구축물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특히 언어학, 지리학적 입장에 기반을 둬으로써 건축담론 혹은 디자인 실무와의 연결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건축 실무와 담론의 구체적 사례에서 발견되는 장소성 개념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실체성을 갖는 장소성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 건축가와 이론가들이 생산해낸 장소성 담론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그 연대기적 변천과정 속에서 발견된 장소성 개념의 한국적 '의미구조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 하겠다.

그 필요성과 의의를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면, 첫째로 건축가, 건축이론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장소성 개념의 모호성과 추상성은 그 사용이 활발했던 9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축 실무 및 담론에서의 혼란을 가져왔는데, 본 연구의 의미구조모형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장소성 개념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소성 개념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인간실존의 근원적 요구와 맞닿아 있는 장소성 개념은 그 일방적 고수나 폐기가 아닌 새로운 진화가 필요하다. 여러 건축개념이이 뭉뚱그려진 장소성 어휘의 실질적 요소들과 그 관계구조를 밝히는 본 연구 결과는 새로운 장소성 개념의 모색을 위한 필수적 토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흔히 건축잡지라고 불리는 한국의 건축 상업지들이다. 보다 '진지하다'고 여겨지는 학술지나 건축 관련 협회지 등의 대상 대신 굳이 잡지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건축잡지는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들을 함께 담아낸다. 시사적인 논평에서부터 작가의 작품설명, 이론가의 비평과 건축이론 탐구 등 현실과 학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관심사를 엮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월간지 형태의 상업지는 당대의 관심사와 분위기에 민감하다.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그 민감성은 건축담론의 시대적 변천사를 살펴보는 데 적절한 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건축계 독자에 한정된다는 한계는 있지만, 건축잡지는 학술지 등과 달리 학자로부터 건축가, 실무자로부터 학생에 이르는 다양한 '건축인'들에게 읽힘으로써 이 사회의 현실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근래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함께 그 영향력은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건축잡지는 구체적 시대, 실질적 건축의 잣대이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소성 담론이 가장 풍성해 보였던 1990년대 전후의 주요 건축잡지로 '공간(1966.11-)', '건축문화(1981.6-)', '이상건축(1992.9-2005.1)'의 세 종류를 선정하고, 이상건축이 폐간되고 잡지의 영향력이 축소된 시점으로 여겨지는 2005년 이전 세 잡지의 모든 텍스트들을 검토하여 장소성 개념과 관계를 가진 글들을 추출, 분석하였다. 본격적 분석,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잡지의 조사에 앞서 그 내용범주나 시기설정을 위해 이론적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건축에서의 장소성 개념을 다룬 기초적 연구들과 국내외 이론서 분석을 통해 용어가 포괄하는 의미 영역의 기초적 열개를 구상하고 잡지에서 텍스트를 선별할 기준을 설정했다. 둘째, 한국 장소성 담론의 연대기적 파악을 위해 관련 논문, 저서 및 주요 번역서들의 등장 시기와 성격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협의의 장소성 담론은 70년대 해외이론의 영향을 받아 8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고, 90년대 전후 가장 활발한 관심과 모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앞서 언급한 세 잡지의 텍스트 중 넓은 의미에서의 장소성 개념을 언급하고 다룬 글들을 선별하였다. 1969-2005년 사이에 발표된 60개의 글이 선정되었고, 우선 이를 시기 순으로 정리하여 의미구조모형을 제안하기 위한 본연구의 기초자료로 준비하였다.

1.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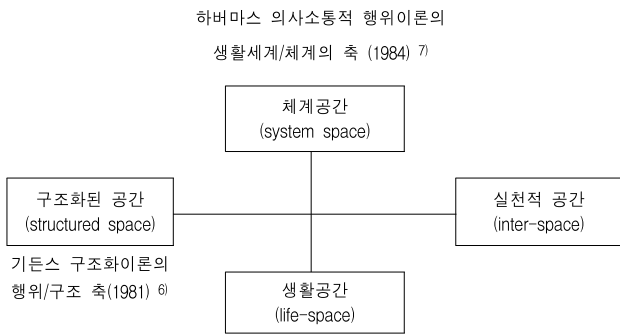
장소성 개념의 한국적 의미구조모형을 추출하기 위해 그 내용과 형식들을 구축하였다. 먼저 그 내용을 이루는 어휘 추출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된 60개 글의 내용이 검토되었는데, 그 핵심 주장과 키워드를 정리하고 이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가능성 있는 중심어휘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형식들에 배치함으로써 그 성격에 따른 재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 내용요소를 선별하였다.



<그림 1> 랠프의 장소성 형성구조

장소성 개념의 형식들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랠프(E. Relph)의 장소성 3요소, 즉 물리적 환경, 인간의 활동, 장소의 의미 구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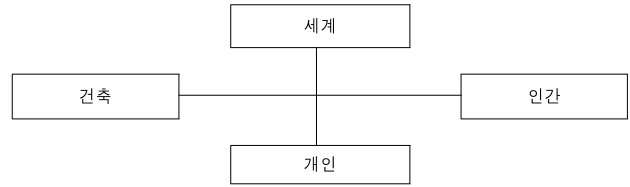
다.³⁾ 우리나라의 건축, 공간, 디자인 관련 많은 연구들에서 이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한 작품분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⁴⁾ 하지만 지리학자 랠프의 이 요소들은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 구체적 내용 분석을 위한 틀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다양한 개념구조를 포괄적으로 구조화한 <그림 2>의 범주화 모형⁵⁾을 기초로 하여 형식들의 구조를 모색하였다.



<그림 2> 장소와 관련된 공간의 범주화

<그림 2>의 구조에 대한 최병두의 설명에 따르면,⁵⁾ 세로축의 체계공간(system space)은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제·정치적 공간으로, 화폐와 권력에 의해 매개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부와 힘이 (재)생산되는 공간을, 생활공간(life-space)은 일상적 생활이 영위되는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언어와 생활 규범에 의해 매개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재)생산되는 공간을 지칭한다. 또한, 가로축 상의 구조화된 공간(structured space)이란 구조 차원의 공간으로, 일정한 활동의 지속이나 사회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공간을 말하고, 실천적 공간(practical space, 또는 간공간 inter-space)은 상호행위 차원의 공간으로, 사람들 간의 대면적 관계와 상호행위 과정에서 즉시적으로 형성되며 일련의 행위가 끝나면 사라지는 공간을 지칭한다. 이러한 구조를 보다 건축적이고도 일반화, 단순화 하는 것을 본 연구를 위한 형식들 구성의 시작점으로 삼았는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여기서 '체계공간-생활공간'의 세로축은 '세계-개인'으로 단순화 되었는데, 이는 건축에서의 장소성 담론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스케일의 관점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척도에 따른 구분은 주체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중심



<그림 3> 장소성 개념의 의미구조모형 형식들

원적 구조를 상징하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비롯된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⁸⁾ 건축의 장소성 논의로 널리 알려진 노베르그 슐츠(C. Norberg-Schulz) 또한 국가, 지역, 경관, 정주지, 건물들, 사물들의 구분을 갖는 연속적 단계를 소위 '구조분석'을 위한 주요한 형식으로 사용하였고,⁹⁾ 본 연구 또한 추출된 주제의 척도별 구분에 의해 세로축의 몇 단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구조화된 공간-실천적 공간'의 가로축은 그림3에서 '건축-인간'의 구조로 설정되었다. 그림1의 요소인 '물리적 환경-인간의 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소성 개념은 항상 건축과 인간의 관계, 혹은 그 경계 속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장 간단한 '건축-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여 가로축을 설정하였지만, 이는 '보이는 것-보이지 않는 것', '유형-무형', '물질-체계'의 일반 구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기초적 형식들 위에 통시적 분석을 통해 추출한 중심어휘들을 배치하며, 그 내용들 간의 비교, 조정을 반복하며 최종적 범주를 설정하였다. 최종범주 구분에 분석 텍스트들을 배치한 뒤 장소성 개념의 공시적 분석을 진행하여 각각의 주제어 사이의 관계성을 검토한 뒤,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장소성 개념의 한국적 의미구조모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2. 건축에서의 장소성 개념의 역사

2.1. 서양건축 담론과 장소성 개념의 역사

건축에서 장소 개념의 등장 시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장소' 개념의 입장에서는 1956년 CIAM의 마지막 10회 대회와 팀텐의 등장을 그 시작점으로 잡을 수 있다. 1세대 근대건축의 종언을 고한 당시 팀텐의 멤버들은 추상성과 기능주의에 경도된 근대건축 대신 땅과 삶, 공동체와 장소감(sense of place)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넓은 의미에서 장소의 개념은 근대건축의 추상공간에 대한 반발이자 대안으로 대두된

3) E. Relph, 김택현 등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p.110-115
 4) 김지현, 김주연, 장소성 구축을 위한 현대건축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7권 제4호, 2012.12, pp.97-107 등
 5) 최병두, 앞의 책, p.260에서 인용, 편집
 6) A. Giddens, 최병두 옮김, 사적 유품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 1991
 7)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einenmann, 1984

8) 2006년 제10회 베니스비엔날레의 영국관을 맡았던 제레미 킬(J.Till)은 다분히 현상학적이고 정치 사회적인 관점의 전시 "The Echo City"를 계획하면서, 구체적 건축 스케일인 1:1, 1:100, 1:10000, 1:10000000을 사용한 구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9) C. Norberg-Schulz, 민경호 등 역, 장소의 혼 -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태림문화사, 1996, pp.18-26

다양한 인간주의적 시도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장소성' 어휘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시작은 1960년의 '도시의 이미지'(케빈 린치), 1966년의 두 책 '도시의 건축'(알도 로시)과 '건축의 복잡성과 다양성'(로버트 벤츄리)을 거치고 난 뒤인 1970년대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협의의 '장소성'은 보통 세계-내-존재로서의 주체를 강조한 하이데거 류의 현상학적 영향권 하에 발생한 지리학과 건축이론의 주장 속에 등장하는 어휘를 말하는데, 지리학 분야에서 랠프(E.Relph)의 '장소와 장소상실'(1976), 이후 투안(Yi-Fu Tuan)의 '공간과 장소'(1977), 건축분야 노베르그 슈츠(C.Norberg-Schulz)의 '장소의 혼-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1979)가 모두 70년대 중후반에 출판되며 본격적인 장소성 담론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도시, 건축분야에서 장소성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로우(C.Rowe)의 '콜라주 시티'(1978), 알렉산더(C.Alexander)의 '패턴랭귀지'(1977) 또한 같은 시기에 등장한 저작이다. 이후 1994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Anyplace회의에서 그 전통적 개념이 폭발하며 의문에 붙여지게 될 때 까지¹⁰⁾, 장소성의 이름은 근20여 년간 근대성과 근대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 중 가장 선명한 대안이자 분명한 한 축으로 작동해 왔다.

2.2. 한국건축과 장소성 개념의 도입

한국에서 본격적인 장소의 논의는 1978년 김광현의 논문¹¹⁾이 가장 앞선 것으로 보인다. 현상학과 노베르그 슈츠의 영향 하에 논의를 펼친 그가 역시 노베르그 슈츠의 책을 번역한 '실존·공간·건축'(1984) 또한 거의 최초로 장소성 개념을 한국에 소개한 책으로 꼽힐 수 있다.¹²⁾ 이후 한동안 이렇다 할 논문이나 서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장소성 담론은 1990년대 중반 갑자기 많은 번역서들을 통해 등장하게 된다. 노베르그 슈츠의 다른 책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진경돈 역, 1994)과 '장소의 혼'(민경호 등 역, 1996), 이후 투안의 '공간과 장소'(정영철 역, 1995)가 번역되었고, 소품인 '예술과 장소 - 건축과 예술 작품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R.D.Parker, 이상현 역, 1995)과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모더니티 조건에 대한 성찰'(D.Harvey, 박영민 역, 1995) 또한 학회지 등을 통해 소개되었다.

10) 세계의 철학, 예술, 건축분야 30인이 모여 장소성 개념을 현대의 철학, 과학, 예술, 사이버스페이스, 정치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회의이다. 다분히 탈근대 혹은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이 우세했던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 의미의 장소성 개념은 급변하는 현대 상황과 함께 의심되고, 변형되고, 때로는 해체되었다. 김석철 외, Anyplace/장소의 논리, 현대건축사, 1997

11) 김광현, 공간에서 장소로 - 건축공간의 근원적 물음,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2호, 1978.6, pp.25-29

12) C. Norberg-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84

그 이후로는 2000년대 들어 철학, 사회학, 지리학 계열에서 장소성과 관련한 다양한 번역서와 저서가 등장했지만, 건축계에서의 출판은 1995년 전후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우리 건축계에 장소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시점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기 선정에 기준점이 되었다. 1990년대의 한국 건축잡지를 중심으로 그 전후로 폭을 넓혀가며 대상 텍스트 선정을 시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969-2005년, 주로는 1988-2002년 사이의 글들이 발췌, 분석되었다.

2.3. 장소성 개념의 내용범주

장소성 개념 자체의 경계는 앞서 거론하였듯이 매우 모호하다. 이렇게 모호한 개념의 실체를 살피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그 개념이 맞서고 있는 상대 개념들을 알아보는 일이다. 최근 여러 학자들의 공통적 주장에서 발견되는 현대 장소성 상실의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¹³⁾

첫째로 지적되는 장소성 상실의 요인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재구조화 및 세계화 과정이 꼽히는데, 이에 대응해서는 공간의 정치학, 공동체 이론 및 일상성 담론 등이 건축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다. 두 번째 요인은 현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것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의 압축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한 건축 담론으로는 소위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와 '맥락주의(Contextualism)'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상성으로 대표되는 근대성의 문제가 거론되는데, 이에 맞서 건축에서는 재료와 물성, 몸과 감각에 대한 현상학적 관심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수집된 개략적 내용범주를 기초로 관련 내용들을 앞서 언급한 세 건축잡지의 글들에서 찾아보았는데, 분명한 저자와 글의 충실도를 만족하고 제목이나 핵심주장에서 앞의 내용들을 다룬 글 60편을 발췌할 수 있었다.

3. 한국 건축잡지에서의 장소성

3.1. 한국 장소성 개념의 통시적 변천

(1) 1980년대 이전 (표 1, 1~4)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장소성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이 1980년 전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 관련 잡지로 공간지가 유일하던 그 이전 시기의 글에서는 장소성 담론의 거시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도시'에 대한 관심으로서,

13) 최병두, 앞의 책, pp.263-265

<표 1> 한국 건축잡지에 등장한 장소성 관련 텍스트의 연대기별 목차 및 내용범주 분류

번호	시기	출처	저자	제목	핵심내용 및 키워드	분류
1	1969.11	공간	김수근	인간환경선언 (인간과 환경 - 한국, 서기2000년)	도시, 인간, 환경론, 미래학, 비전	1A
2	1969.11	공간	이여령	미디어와 인간의 새로운 환경	인간, 환경, 미디어	1A
3	1970.10	공간	강병기	도시환경을 이루는 것들	가로장치, 광장, 공원, 스카이라인	1A
4	1977.08	공간	김원	'변화의 수용' 없는 '이상도시' 사고의 위험성	이상도시, 인간정주, 입지적 스테디	1A
5	1988.01	건축문화	강혁	재개발의 명분과 실제 - 울지로 도심 재개발의 경우	길의 소멸, 맥락, 사회적 발언	1B
6	1988.11	건축문화	황기원	자동차	내부와 외부, 인공환경, 차안에서 보는 풍경	1A
7	1988.12	건축문화	황기원	큰 세상과 작은 세상	거시적 도시계획, 미물의 삶과 보금자리	1A
8	1989.01	건축문화	장기성	잠실지역 점령군 - 롯데월드	수도권 정비계획법, 교통, 외부공간, 그리움	1B
9	1989.05	건축문화	김인철	소비문화와 수사학 - 동송아트센터 비평	장소적 성격, 분위기, 문맥, 도시문법	2A
10	1989.07	건축문화	김경호	한국에서의 지역주의 (건축과 도시의 지역성)	비판적 지역주의, 전통, 한국성	2B
11	1991.05	건축문화	조건영	서울의 도시적 맥락은 어떤 것일까?	건축심의, 도시적 맥락, 혼란한 아름다움	2A
12	1991.07	건축문화	승효상	가회동의 6개 공간 (가회동 11번지 6제)	장소성, 아이덴티티, 땅, 삶의 공간	2A
13	1993.02	이상건축	강혁 등	도시의 가로만들기와 도시설계의 역할 - 광안리 해변가로를 중심으로	가로이미지, 장소적 특성, 건축적 스케일	2A
14	1993.03	이상건축	우동주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 지방성	로컬 컬러, 지역건축	2B
15	1993.10	이상건축	강혁	현대건축에서 지역주의가 지니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	통합과 다원화, 자기동일성, 지역주의 건축	2B
16	1994.03	이상건축	김성우	건축가에게 도시란 무엇인가?	삶의 장소, 가치의 경우, 도시적 맥락	2A
17	1994.09	건축문화	김억중	몸건축	몸의 반응, 감각, 땅, 의미체계	4A
18	1994.09	건축문화	정기용	미완의 모더니즘	땅과의 교감, 근원적 의미체계 생성	2A
19	1995.01	이상건축	강혁	국제화의 충격과 한국건축	세계화, 지역성, 독자성, 정체성, 전통성	2B
20	1995.06	건축문화	심영섭	재개발, 재건축 - 파괴적 장소인가 창조적 파괴인가?	재개발, 장소, 기억	1B
21	1995.09	이상건축	강혁	역사와 건축 - 광복50주년, 구충독부 청사의 철거에 즈음하여	텍스트/콘텍스트, 아이덴티티, 맥락	2B
22	1996.01	건축문화	무세중	휴에 대한 철학적 인식 (한국건축의 영원한 자리 '휴')	땅의 실제, 생명, 풍요로운 조화	4A
23	1996.01	건축문화	이영철	땅과 거주공간의 가능한 미래상 - 하이데거와 르 꼬르뷔제의 공모(?)	거주공간, 실천적 건축론	4B
24	1996.01	건축문화	정기용	도시건축의 미래와 땅의 재발견	터, 순수한 땅의 논리, 장소성, 풍경	3A
25	1996.05	건축문화	김성우	명동 뽕죽집과 그 변화 (명동성당 공모 서문)	건축적/상징적/도시적 의미, 만듦/생김	2B
26	1998.11	건축문화	김광현	건축과 장소	장소성, 하이데거, 거주	4B
27	1999.08	이상건축	이동언	삶의 현상학(삶 끌어안기學)과 건축: 우리건축에서 '몽달鬼'의 극복을 위해	합리적/현상학적 이성, 삶의 현상학, 현재의 맥락, 존재의 깊이	4B
28	1999.08	이상건축	이상현	현대건축의 이데올로기와 건축적 실천의 가능성	타푸리, 순수건축, 일상생활, 건축적 실천	1B
29	1999.12	이상건축	김봉렬	한국성, 지역성과 현재	정체성, 도시적 전체성, 대지의 현상화	2B
30	2000.09	이상건축	류동민	경제학과 공간	자본주의, 이질적 시공간, 인간적 공간	1B
31	2000.10	이상건축	신병윤	테크노폴리스와 장소결정론	도시지리학, 장소결정론, 경제적 장소	1B
32	2000.12	이상건축	류춘수	환경과 건축의 관계 (새로운 건축으로서의 환경)	상태, 기억, 주거, 자연, 컨텍스트	1A
33	2000.12	이상건축	정기용	기억 속의 풍경, 풍경 속의 기억, 그리고 건축	건축적 랜드스케이프, 풍경학	3A
34	2000.12	이상건축	최종덕	몸과 집 - 생명의 터전을 위하여	몸의 상상력, 통로공간, 공동체 공간	4A
35	2000.12	이상건축	김광현	건축과 공동성 (II)	공동체, 탈공동체적 사유, 사회적 관계, 타자	3B
36	2001.01	이상건축	정기용	휴과 건축: 잊혀진 정신-집의 원형과 공동성의 탐색	오래된 가치, 지속가능, 원형, 공동성	4A
37	2001.02	이상건축	승효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	불확정적 공간, 삶의 풍경, 공동성	3B
38	2001.02	이상건축	이상해	파주출판도시가 갖는 의미	공동성의 실천, 새로운 공동체, 천인합일	3B
39	2001.02	이상건축	김영준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	땅, 도시구조, 유형, 재료, 바닥판, 수로	3A
40	2001.02	이상건축	김병윤	떠오르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성, 랜드스케이프, 지형학, 감촉성	3A
41	2001.05	이상건축	강혁	정주와 유목사이: 짓기와 살기의 관계	거주함, 집없음, 살기와 짓기, 쉼터	4B
42	2001.05	이상건축	김종규	헤이리 건축설계지침의 이론적 배경	랜드스케이프, 지형적 공간, 하부구조	3A
43	2001.05	이상건축	김병윤	문화의 시대, 자연의 시대	공동운명, 랜드스케이프의 축소	3B
44	2001.06	이상건축	남기범 등	소비의 도시, 그 내면과 환상	공간경제, 거대 상업공간, 공동의 장	1B
45	2001.08	공간	박길룡	한국성에 이르기-전통이라는 포털리즘	지역성, 한국의 공간/정서, 물성, 현상/상상	4A
46	2001.10	건축문화	김광현	거주의 근거	거주의 공동성, 일상생활, 동일화, 하이데거	4B
47	2001.12	이상건축	이상현	환경문제와 경관미학	경관미학, 장소성과 시간성, 경관생태학	3A
48	2001.12	이상건축	조경진	도시 속의 경관: 변화하는 의미와 그 새로운 가능성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경관문화	3A
49	2002.09	이상건축	강혁	몸의 건축과 건축의 몸	현상학적 몸, 권력과 자본, 쾌락과 욕망	4A
50	2002.10	이상건축	이영범	공동체, 자폐증 일상 속의 작은 광장들	삶의 이야기, 공동체, 일탈의 공간, 광장	3B
51	2002.06	공간	송인호	통의동 도시건축 열린책들 사육	도시스케일, 분절, 도시조직, 경관	2A
52	2003.04	건축문화	안창모	또 다시 개발의 시대에 직면한 건축가의 선택은?	공생, 사회적 건축, 사용자를 위한 건축	1B
53	2003.05	건축문화	조성룡	풍경과 건축	지형, 지역성, 공유공간, 커뮤니티, 아이덴티티, 기억, 다의성, 불확정적 공간, 경관	3A
54	2004.07	공간	박철수	자폐증의 건축, 분열증의 도시	장소, 일상생활, 지속, 르페브르, 공공성	3B
55	2004.07	공간	김미상	도시와 건축의 유리상황에 관하여	정체성, 장소, 도시와 건축의 분리현상	2A
56	2005.04	건축문화	김광현	시간과 땅 속의 공동성	건축주, 인간과 시간과 땅, 사회화된 풍경	3B
57	2005.11	공간	이종호	도시, 문화, 정체성	자본주의, 문화도시, 문화정체성	2B
58	2005.11	공간	손세관	21세기 도시 패러다임, 장소만들기	장소의 집합체, 커뮤니티, 시간성	1A
59	2005.11	공간	장운규	청계천다리 총동구매 (장소만들기)	공공적 프로젝트, 입체적 랜드스케이프	3A
60	2005.11	공간	조광제	몸과 서울의 공간	자본주의적 수직의 몸, 친밀영역	4A

* 이 표의 맨 오른쪽 '분류'열은 표2의 주제별 분류 결과를 추후 반영한 것이다.

당시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김수근의 주도하에 근대건축적 이상도시와 이를 보완한 팀텐 류의 인간주의적, 혹은 공동체적 도시계획에 연관된 주장들이 혼재되어 등장한다. 1977년에 김원은 근대적 이상도시 추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인간정주’를 언급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진다. 196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스웨덴이 국제적 환경 협력 체제를 위한 유엔 총회를 제안하고 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된 세계정세 속에서 공간지는 69년 발 빠르게 인간과 환경 이슈를 특집으로 다루며 건축에서의 환경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래학에 근거한 장미빛 전망들이 주를 이루며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는 한계를 보였다.

(2) 1980년대 (표 1, 5~10)

1980년대 장소성 관련 텍스트는 후반부에 들어 등장한다. 88서울올림픽과 맞물린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 대한 반발의 차원에서 ‘삶’, ‘보금자리’, ‘그리움’ 등의 정서를 환기하며 ‘맥락’과 ‘비판적 지역주의’ 등 서구 담론의 대안들이 개진되었다. 강혁 등의 현실 참여적 발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장소적 성격’, ‘문맥’, ‘도시문법’ 등의 용어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최초의 건축비평으로 보이는 김인철의 ‘소비문화와 수사학 - 동숭아트센터 비평’이 89년 건축문화에 실리기도 하였다.

(3) 1990년대 (표 1, 11~29)

1990년대 한국 건축계는 전반기의 43그룹과 후반기의 서울건축학교를 이끈 소위 주류 건축가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43그룹의 건축가들은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 장소성 담론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김광현의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작품 속에 장소의 논의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같은 맥락의 건축가들이 시작한 서울건축학교는 실제 한국 지방 도시들을 순회하며 그 장소의 고유성을 발굴하고 이에 반응하는 워크샵과 그 결과물의 출판물 통해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장소담론을 이어갔다. 90년대 한국건축에서 발견되는 장소성에의 큰 관심은 바로 이 두 단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장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운 ‘가회동 11번지 6제’가 건축문화 특집으로 다루어졌는데,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승효상의 글에서는 ‘장소의 의미’, ‘아이덴티티’, ‘땅’, ‘공동체’, ‘삶의 공간’ 등 전형적인 장소성 어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4년 건축문화의 ‘지역성의 향방과 그 발견’ 특집에서 김억중과 정기용 등은 ‘몸’, ‘기억’, ‘교감’ 등을 언급하며 보다 개인적 스케일의 현상학적 접근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었고, 1999년 이동언은 본격적인 현상학적 관점에 근거한 ‘삶의 현상학과 건축’이라는 글을 이상건축에 발표하였다.

(4) 2000-2002년 (표 1, 30~51)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장소성 관련 텍스트가 등장하면서, 90년대 풍부했던 관련 논의들이 절정기에 이르는 때로 볼 수 있다. 역시 앞선 시기를 이끌었던 건축가 그룹에 의해 진행된 2개의 굵직한 프로젝트를 통해 풍성한 장소 논의가 이어졌는데, 파주출판도시와 헤이리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장소성의 거시적 건축이론에 부응하여 건축 실천적 대응으로 이 시기 대두된 개념은 ‘랜드스케이프’ 혹은 ‘경관’이었는데, 이는 종래의 환경, 맥락, 정체성, 공동체 등의 논의에 재료와 물성적 고려까지 포괄한 나름의 통합적 설계이론으로 제시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관 개념의 주도 속에 기왕의 여러 장소성 주제 또한 백가쟁명 식으로 등장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전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주’와 ‘공동성’의 담론이 다시 본격적으로 개진되었고, 조금 더 개인적인 ‘일상’과 ‘몸’의 이야기가 다시 진지하게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5) 2003-2005년 (표 1, 52~60)

본 연구 대상 중 마지막 기간인 이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앞선 시기였던 60-70년대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앞선 시기가 자본과 권력에 의한 근대적 ‘공간’의 식민지화에 따른 혼란의 시기였다면, 이 마지막 시기에서는 다시 자본과 권력에 의한 ‘장소’의 식민지화와 그에 대한 건축의 뒤섞인 반응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장소 마케팅’, 거대자본에 의한 소위 ‘유사장소’의 출현 등을 바라보며, 장소성 개념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도 대안 없는 비판도 하기 힘든 처지에 놓인 건축담론의 상황을 2005년 공간지의 ‘장소 만들기’ 특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철수의 글 ‘자폐증의 건축, 분열증의 도시’가 르페브르(H.Lefebvre)의 공간의 정치학과 일상성 담론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2. 한국 장소성 개념의 공시적 구조

(1) 장소성 개념의 구조화

앞서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장소성 개념의 의미구조 모형 형식틀’에 <표 1>의 내용을 배치하여 <표 2>의 주제별 분류를 구성하였다. 그 중 세로축의 ‘세계-개인’의 척도별 단계 구분은 분석 내용들을 분류한 결과 적정 수준인 네 개의 단계로 설정하고 1에서 4까지의 기호와 ‘도시-마을-건물-개인’의 항목을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표 2>의 중심축) 가로축의 ‘건축-인간’ 구분에 대하여는 각각 A와 B의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두 개의 축에 따른 8개의 범주가 형성되었다.

그 각각에 해당되는 주제어를 살펴보면, 1A-도시계획/환경, 1B-도시론/정치경제, 2A-맥락/땅, 2B-지역성/정체

<표 2> 한국 건축잡지에 등장한 장소성 관련 텍스트의 주제별 분류

분류	시기	제목 (분류A)	건축	척도	인간	제목 (분류B)	시기	분류
1A	6911	인간환경선언 (인간과 환경 - 한국, 서기2000년)	도시 계획, 환경	(분류1) 도시	도시론, 정치 경제	재개발의 명분과 실제 - 을지로 도심 재개발의 경우 잠실지역 점령군 - 롯데월드 재개발, 재건축 - 파괴적 장소인가 창조적 파괴인가? 현대건축의 이데올로기와 건축적 실천의 가능성 경제학과 공간 테크노폴리스와 장소결정론 소비의 도시, 그 내면과 환상 또 다시 개발의 시대에 직면한 건축가의 선택은?	8801	1B
	6911	미디어와 인간의 새로운 환경					8901	
	7010	도시환경을 이루는 것들					9506	
	7708	'변화의 수용' 없는 '이상도시' 사고의 위험성					9908	
	8811	자동차					0009	
	8812	큰 세상과 작은 세상					0010	
	0012	환경과 건축의 관계					0106	
0511	21세기 도시 패러다임, 장소만들기	0304						
2A	8905	소비문화와 수사학 - 동송아트센터 비평	맥락, 땅	(분류2) 마을	정체성, 지역성	한국에서의 지역주의 (건축과 도시의 지역성)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 지방성 현대건축에서 지역주의가 지니는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국제화의 충격과 한국건축 역사와 건축 - 광복50주년, 구충독부 청사의 철거에 즈음하여 명동 卍죽집과 그 변화 (명동성당 공모 서문) 한국성, 지역성과 현재 도시, 문화, 정체성	8907	2B
	9105	서울의 도시적 맥락은 어떤 것일까?					9303	
	9107	가회동의 6개 공간 (가회동 11번지 6제)					9310	
	9302	도시의 가로만들기와 도시설계의 역할 - 광안리 해변 가로를 중심으로 건축가에게 도시란 무엇인가?					9501	
	9403	미완의 모더니즘					9605	
	9409	통의동 도시건축 열린책들 사육					9912	
	0206	도시와 건축의 유리상황에 관하여					0511	
0407	도시와 건축의 유리상황에 관하여	0511						
3A	9601	도시건축의 미래와 땅의 재발견	경관, 풍경	(분류3) 건물	공동체, 공동성	건축과 공동성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시 파주출판도시가 갖는 의미 문화의 시대, 자연의 시대 공동체, 자폐증 일상 속의 작은 광장들 자폐증의 건축, 분열증의 도시 시간과 땅 속의 공동성	0012	3B
	0012	기억 속의 풍경, 풍경 속의 기억, 그리고 건축					0102	
	0102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					0102	
	0102	떠오르는 대지에 대하여					0105	
	0105	헤이리 건축설계지침의 이론적 배경					0210	
	0112	환경문제와 경관미학					0407	
	0112	도시 속의 경관: 변화하는 의미와 그 새로운 가능성					0504	
	0305	풍경과 건축						
0511	청계천다리 총동구매 (장소만들기)							
4A	9409	몸건축	물성, 몸	(분류4) 개인	실존, 일상	땅과 거주공간의 가능한 미래상 - 하이데거와 르 꼬르 뷔제의 공모(?) 건축과 장소 삶의 현상학(삶 끌어안기學)과 건축: 우리건축에서 '몸 달뿔'의 극복을 위해 정주와 유목사이: 짓기와 살기의 관계 거주의 근거	9601	4B
	9601	휴에 대한 철학적 인식					9811	
	0012	몸과 집 - 생명의 터전을 위하여					9908	
	0101	휴과 건축: 잊혀진 정신-집의 원형과 공동성의 탐색					0105	
	0108	한국성에 이르기-전통이라는 포털리즘					0110	
	0209	몸의 건축과 건축의 몸						
0511	몸과 서울의 공간							

성, 3A-풍경/경관, 3B-공동체/공동성, 4A-물성/몸, 4B-실존/일상으로 설정되었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글들은 대략 5-9개 사이에서 대체로 균일한 편이었고, 각 범주에 해당되는 글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표1의 분류항목에 회색 톤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2) 장소성 개념 구조의 척도분류

<표 2>의 8가지 범주를 크게 둘로 나누어보자면 위쪽의 네 범주(1A, 1B, 2A, 2B)와 아래쪽의 네 범주(3A, 3B, 4A, 4B)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척도의 구분이라 할 수 있는 이 분류는 건축 담론의 시대적 변천과도 일치하는데, 개략적으로 도시와 마을 수준의 위쪽 범주는 90년대 이전, 건물과 개인 수준의 아래쪽 범주는 주로 90년대 이후에 나타났다. 이는 전체주의적 경향에서 개인주의적 경향으로의 시대변천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80년대 이전 도시 수준의 논의를 시작으로 90년대 전반기에 맥락, 지역성 등의 마을 수준 담론, 90년대 후반기에는 물성, 거주 등의 개인 차원의 이야기가 먼저 등장했으며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 전형적인 건축스케일이라 할 수 있는 경관과 공동성 등의 논의가 등장한 것을 발견하였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중앙의 네 범주(2A, 2B, 3A, 3B)와 그 위(1A, 1B), 아래(4A, 4B)로 나누어 볼 수도 있는데, 그중 중앙의 범주들이 소위 가장 '건축적'인 범주로, 그 위쪽은 정치경제학적, 아래쪽은 좀 더 철학적인 범주라고 볼 수 있다.

(3) 장소성 개념 구조의 비판적 해석

분류 A-B의 좌우 관계는 각 척도별로 조금씩 다른 관계 양상을 보인다. 먼저 척도1의 도시차원 담론은 왼쪽의 건축범주가 먼저 시작되고 인간범주의 논의는 8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하였다. 건축범주의 논의는 주로 환경 이슈를 내세우며 긍정적 미래상을 그려보려 노력한 반면 오른쪽 인간범주에서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 근거한 분석들을 통해 비판적 시선을 보이는 대립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척도2의 마을 차원에서 좌우의 범주는 각기 장소성 담론의 공간-시간 구분에 대응한다. 매우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두 범주는, 하지만 서구의 건축이론에서도 혼동을 보일만큼 실은 매우 가까운 관계이다. 근대건축 어휘를 분석한 책 '건축을 말한다'에서 포티(A.Forty)가 '컨텍스트(Context)'를 설명한 부분에 따르면,¹⁴⁾ 이 용어는 1950년대 중반 이탈리아의 로저스(E.Rogers)가 1세대 근대 건축가들을 비판하며 언급한 '*preesistenza ambientale*'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전 존재)의 어휘가 영어권에서 'context'로 번역되며 혼동을 일으키게 된 사례였다. 로저스의 용어는 사실 시간적 연속성과 역사를 의미하는 쪽에 가까웠지만, 영어권의 콜린 로우에게 컨텍스트는 주로 공간적이고 형태적인 관점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

14) A. Forty, 이중인 역, 건축을 말한다, 미메시스, 2000, pp.180-187

이다. 본 연구의 사례 텍스트들에서도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듯이, 디자인적 관점의 '맥락'과 역사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정체성'의 괴리는 앞으로도 통합된 개념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통합을 나름대로 시도한 것이 척도3에서 발견되는 '경관'과 '공동성'의 담론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파주출판도시를 기획하며 랜드스케이프 건축의 이론을 펼친 건축가들은 다소 왜곡되었으나 김광현이 강조하던 당대의 공동성 개념을 함께 내세우며 통합된 이론을 완성하고자 노력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1996년 김성우가 명동성당 공모 서문에서 지적하였듯이 (표1-25) '생김' 보다 '만듦'에 치중한 한계를 보였으며, 따라서 참여적 이기보다 건축 중심적 자폐성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장소성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대상 중 가장 후반부에 등장한 이러한 경관 개념을 넘어서는 또 다른 건축적 시도가 지금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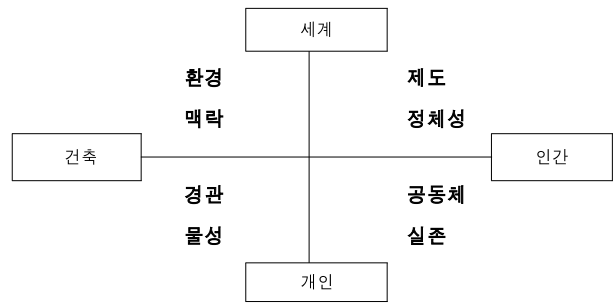
마지막 네 번째 척도의 좌우 범주는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의 구분으로 대별될 수 있다. 가장 현상학적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범주들은 장소성 담론의 가장 근원적 원천이며 최후의 보루로서, 최근까지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근원성이 현실 건축 속에서 발현될 적절한 통로를 찾지 못한다면, 매우 지엽적인 관심사들로 흩어지거나 너무 노스텔직한 낭만성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 근원적 척도의 담론이 소위 보다 '건축적'인 척도 2, 3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찾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 하겠다.

3.3. 소결

통시적 연구의 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대구분을 개괄하면, 한국 건축 텍스트에서 장소성 담론은 1988년 이전의 모색기, 이후 2002년까지의 발전과 성숙기, 그리고 그 이후의 전환기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그 중 2000-2002년 사이에 가장 많고 완숙한 장소 논의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시기별 주요 담론을 살펴보면, 1960-70년대에 근대건축의 극복을 위해 도시적 차원에서의 장소성 담론이 먼저 등장하였고, 이후 80년대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이어졌다. 1990년대 43그룹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장소 담론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파주출판도시 등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 모색되는 하나의 완숙기를 이루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장소성 마저 지배하려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다시 등장하며 장소성 논의의 다원적 분산현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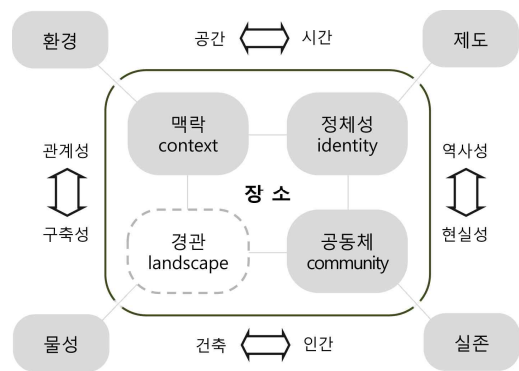
통시적 분석에 이어 한국 장소성 담론을 공시적으로

구조화하려는 시도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의 내용 범주는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맞선 공간의 정치학, 공동체, 일상성 등의 주제와, 정보화에 따른 시공간 압축에 저항한 지역주의 및 맥락주의, 그리고 근대적 추상성을 극복하려 했던 물성과 감각 등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둘째, 텍스트 분석에 이은 범주의 구조화를 위해 스케일에 따른 네 단계의 축과, '구조화된 공간-실천적 공간'의 분류에 따른 또 다른 축에 의해 형성된 8개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를 '연구방법'에서 앞서 제시한 <그림 3> 도식에 배열해보면 그림4의 기본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림 4> 장소성 개념의 의미구조모형 형식들과 내용

마지막으로 각 범주의 내용과 그 상관관계들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각 담론들이 보여준 시도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도식화한 최종적 의미구조모형은 <그림 4>의 기본 구조에 의미와 관계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었다.



<그림 5> 장소성 개념의 의미구조모형

<그림 5>의 모형에 따르면 한국 건축담론에서의 장소성은 맥락, 정체성, 경관, 공동체의 개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더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 제도, 물성, 실존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각 요소들은 관계성-건축성, 역사성-현실성, 공간-시간, 건축-인간의 대립항에 의해 구분되어 있지만, 이들의 통합으로 제시되는 장소성은 그 대립항들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가 도출한 장소성 개념의 의미구조모형 분석에 따른 제안으로는, 맥락-정체성 개념을 통합하는 이론적 발전, 경관-공동성 개념의 통합 노력을 뛰어넘는 또 다른 건축적 시도, 사변적 차원에 머물 위험이 있는 현상학적 주제들의 건축적 발현 모색 등이 여전히 우리 건축에 남아있는 과제로 개진될 수 있겠다. 이 중 장소성 요구에 대한 가장 '건축적' 대응으로 볼 수 있는 '경관' 개념은 가장 최근이면서도 가장 최후의 본격적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요소들을 포섭하면서 경관의 담론을 뛰어넘는 주제의 등장이 건축디자인의 영역에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시급한 숙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한국 건축잡지에 등장한 장소성 관련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 통시적 맥락과 공시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개념의 연대기적 변천을 되짚어보는 한국 건축사적 의의, 그 의미의 스펙트럼 속에서 우리의 장소성 개념 자체를 재정립하는 건축이론적 의의 외에도 건축 디자인의 과제를 명료하게 설정하는 의의 또한 기대한 것이었다. 근래에 발견되는 건축 이론, 디자인, 비평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장소성 개념에 대한 극심한 혼돈을 반영한다. 이제 장소성 개념은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주장과 여전히 인간의 근원적 요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소성을 발견해야한다는 주장까지 수많은 의견들이 엇갈린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과거를 폭넓게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담론의 형식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미래를 전망하는데 하나의 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향후 관련 연구로 장소성을 다룬 국내 번역서와 단행본의 구체적 내용과 보다 학술적인 국내 논문들의 전개 또한 추적해 더욱 심도 있는 한국적 장소성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대적으로는 이 논문이 다루지 않은 2005년 이후의 다양한 모색들을 급변하는 현대 상황과 함께 분석, 종합하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장소성 개념의 정초, 혹은 그 변신의 단초들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1. 김석철 외, Anyplace/장소의 논리, 현대건축사, 1997
2. A. Forty, 이종인 역, 건축을 말한다, 미메시스, 2000
3. A. Giddens, 최병두 옮김,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 1991
4. C. Norberg-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1984
5. C. Norberg-Schulz, 이정국 등 역,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시공문화사, 1994
6. C. Norberg-Schulz, 민경호 등 역, 장소의 혼 -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태림문화사, 1996
7. E. Relph, 김덕현 등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8.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einenmann, 1984
9. Yi-Fu Tuan, 구동희 등 역,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 1995
10. 김광현, 공간에서 장소로 - 건축공간의 근원적 물음, 대한건축학회지, 22권 82호, 1978.6
11. 김지현, 김주연, 장소성 구축을 위한 현대건축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7권 제4호, 2012.12
12. 이석환, 황기원, 장소와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2권 제5호, 1997.10
13. 최병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소성의 상실과 복원, 도시연구 통권 제8호, 2002.12
14. D.Harvey, 박영민 역, 공간에서 장소로, 다시 반대로 -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 대한 성찰, 공간과사회, 5권 pp.32-72
15. R.D. Parker, 이상현 역, 예술과 장소 - 건축과 예술작품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제39권 제4호, pp.43-46
16. 공간사, 공간 SPACE, 1966.11-2005.12
17. ANC, 건축문화, 1981.6-2005.12
18. 월간 이상건축, 이상건축, 1992.9-2005.1

[논문접수 : 2014. 12. 31]
[1차 심사 : 2015. 01. 29]
[2차 심사 : 2015. 02. 10]
[게재확정 : 2015. 02. 22]